

# 《왜 나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가? Why Do I Love These People? : Honest and Amazing Stories of Real Families》 가족,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

저 자\_ 포 브론슨 Po Bronson  
출판사\_ 랜덤하우스 Random House

**바람**직한 가족이란 무엇일까? 요즘처럼 가족의 위기라는 말이 흔히 들리는 시기에 가족이 무엇인지 새삼스레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는 주제다. 말다툼조차 않고 조용하게 지내고, 서로 신경을 건드리는 일도 없고, 또 서로 간섭하지 않으면서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가족이 바람직한 가정일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이상적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가족이란 공간 내에서도 소외감을 느낀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또한 이런 이상적인 가족을 기준으로 실제 가족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일까? 우리 독자에게도 《내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물푸레)의 저자로 꽤나 알려진 포 브론슨(Po Bronson)은 신작 《왜 나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가?》(Why Do I Love These People? : Honest and Amazing Stories of Real Families, Random House)에서 가족이란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했다.

포 브론슨은 이 책을 쓰기 위해 3년 간의 자료 조사와 약 700가정을 인터뷰했다고 한다. 저자는 불륜, 약물 중독, 임신한 10대의 딸, 이혼, 세대 간의 반목 등 치명적 결함을 보이는 19가족을 소개한다. 이 가족들의 이야기가 모두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와 닿고 설득력을 갖는 이유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브론슨은 특유의 논픽션 화법과 철학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이 책에서 소개된 가족들을 추적한다. 그들에게 닥친 아픔은 우리가 가족 내에서 겪는 아픔이기도 하다. 따라서 상처를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리고자 혼신의 힘을 다하는 그들의 이야기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찾게 된다.

이 책의 주인공들은 감정적으로 파산한 상태에서 출발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삶을 더 사랑하는 단계에 이른다. 관계를 회복하는 데 성공하는 가족도 있는 반면에 기존의 관계를 떠나보내고서야 더 나은 삶을 찾은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 책이 전하는 지혜는 이런 결과에 있지 않다. 그들이 정상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있다. 이 책에 실린 19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모든 가족에게 필수적이면서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었던 가족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브론슨은 그들이 처한 딜레마에 대한 해답을 찾아 나서지만 가족의 삶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은 그다지 낭만적이지 못한 듯 하다. 그는 가족이란 천생연분이라든지 극적인 감정의 카타르시스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과 타협과 현실적 기대 그리고 때로는 회복 불가능한 관계를 과감히 청산하려는 의지를 꾸준히 행해나가는 습관에 기초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브론슨은 오늘날의 가족들을 낙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옛 세대에 비해 가족을 크게 중요시하지 않는 젊은 세대들에게 "가족의 황금시대가 비단 과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미래 속에 있다."라고 말하며 가족이란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

가족은 우리를 구분짓는 경계선이 아니다. 달리 말하면 내 가족과 너 가족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물론 그 구성원은 다르지만 가족은 우리 모두가 발을 딛고 있는 공통된 기반이고, 그 공통된 기반은 사랑에 있다.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족이 위기에 처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가족이 지닌 본능적인 사랑은 조그마한 기회만 주어져도 다시 되살아나는 놀라운 재생력을 갖는다. 따라서 저자는 문제 많은 가족을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대신 그만하면 괜찮다고,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힘껏 응원해 준다. **\*\*\***

글쓴이\_ 강주현(번역가)

English

# 《석유의 감춰진 얼굴 La face cachée du pétrole》

## 석유를 둘러싼 음모의 역사

저자 \_ 에릭 로랑 Eric Laurent  
출판사 \_ 플롱 PLON



1970년대, 석유생산이 우리나라 온 국민의 여망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가장 유력한 석유매장지역이라는 '제7광구'가 유행가로 불려지고, 우리나라 앞바다 어디선가 석유원액이 나와 감격한 대통령이나 한 사발을 '원샷'했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석유는 온 나라의 희망이자 '로또복권'이었다. 1970년대 두 차례의 유류파동으로 피땀 흘려 이룬 경제성장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릴 위기를 경험했으니 석유가 한순간 희망이자 숭배의 대상이 된 것도 이해할 만하다.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다. 지구를 움직이는 가장 주요한 동력이 되어버린 석유는 그 위상만큼이나 최근의 세계역사에 영향을 미쳐왔다. 그러나 석유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아니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 역학관계는 석유의 신비로운 생성과정만큼이나 늘 베일에 가려진 채 진행되었다.

"지난 150년 동안 일어났던 전쟁의 배후에는 언제나 석유가 있었다. 석유는 그 비밀로 들어가는 열쇠이며 오늘날의 성장과 번영, 행복 그리고 세계 전쟁의 원인이었다."

프랑스인 저널리스트 에릭 로랑이 펴낸 《석유의 감춰진 얼굴 La face cachée du pétrole》은 석유가 인류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로 등장한 때부터 지금까지 석유를 둘러싸고 벌어진 음모와 암투 그리고 전쟁들의 배후를 파헤친 책이다. 이 책에는 어쩌서 1973년의 오일쇼크가 OPEC국가와 석유회사들의 거대한 음모였는지, 세계 산유 저장량의 통계수치가 산유국들이나 메이저 정유사들에 의해 어떻게 조작되고 있는지, 미국이 소비에트를 붕괴시키기 위해 어떻게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를 이용했는지 등에 대해 하나하나 증거를 제시하며 논증한다. 그에 따르면 석유의 역사는 곧 협잡과 거짓의 역사였다. 그리고 그 거짓과 협잡의 중심에는 미국(영국을 포함한 세계 강대국까지), 주요 산유국들 그리고 거대정유회사라는 세 개의 축이 있다. 이들은 석유에 관련된 대중의 정보를 최대한 차단하고 왜곡하는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지켜왔다. 한 예로 1928년 세계적인 석유회사들은 비밀리에 카르텔을 조직하였고 유가를 가장 높은 가격으로 유지하기 위해 담합한다. 이에 따라 석유는 원산지에 상관없이, 항로의 길이에 상관없이, 생산원가에 상관없이 언제나 가장 비싼 값으로 팔 수 있었다. 그 결과 세계 석유매장량의 65%를 이들 7개 회사가 차지하게 되었으며 이들은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연합군의 선박에조차 최대의 이윤을 적용하여 석유를 판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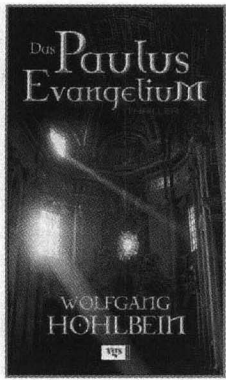
2001년 9.11테러가 일어나기 6주 전 이라크의 미래 석유개발계획을 표시한 지도가 체니 부통령과 석유정책책임자 그리고 '비밀회사'라 이름 붙은 단체 앞으로 똑같이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그는 미국이 이미 이라크의 석유 지배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테러는 핑계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폭로한다. 이렇게 독자들은 멀리 오스만터키의 멸망에서 중동전쟁, 이란의 종교혁명 그리고 최근 미국의 이라크 침공까지 굵직굵직한 역사적 사건들에 감춰진 미스터리가 '석유'라는 키워드 하나로 줄줄이 떨어져 나오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 책이 석유자원의 고갈이 당장 눈앞에 닥쳤음을 경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지구가 보유하고 있는 석유가 곧 바닥날 것이라는 우려는 공식, 비공식적 조사보고를 통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의 지은이는 우리가 예상하던 것보다 훨씬 거대한 쇼크가 곧 닥쳐올 것이라고 예견한다. 이런 비판적인 견해의 근거로 지은이는 산유국이나 석유회사들이 오랫동안 석유 부존량에 대해 조작된 수치를 발표해 왔음을 들고 있다. 예를 들어 1986년 OPEC 국가들은 단순한 숫자조작을 통해 산유량을 65%나 올려 발표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러시아 같은 나라는 최근 들어 석유 부존량을 아예 비밀에 붙이고 있다. 미국의 석유생산은 1970년대에 이미 정점(peak)를 지나쳤으며 북해의 석유는 거의 고갈상태에 있다. 현재 세계적인 석유 수요량이 하루 6배럴인 데 비해 생산량은 1배럴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중국과 인도에서 급격한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석유 소비량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충격적인 진실을 사람들은 당장의 이해관계 때문에 또는 거대한 파장에 대한 두려움으로 속수무책 눈을 감고 있다는 것이다.

'마법의 액체', '검은 황금' 또는 '세계의 피'라 불리는 석유, 인류의 위대한 문명을 깨어나게 했던 에너지가 이번에는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올 것인가? 필자의 설득력 있는 논증들과 명확한 결론들이 제발 틀렸기를 기도하며 한 장 한 장 책장을 넘기게 만든다. **주요**

글쓴이 \_ 조정훈(번역가)

FRONTIER



# 볼프강 홀바인 《바울 복음서》

## 사라진 복음서의 비밀

원 제\_ (바울 복음서)(Das Paulus-Evangelium)  
 저 자\_ 볼프강 홀바인(Wolfgang Hohlbein)  
 출판사\_Vgs  
 출판년도\_ 2006년 5월

**반년** 이 넘는 동안 여러 번의 출간 연기와 다각적인 보완 작업 끝에 볼프강 홀바인의 스릴러물 《바울 복음서》가 마침내 세상에 선을 보였다. 어찌 보면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를 연상시키기도 하는 작품이다.

이야기는 나름대로 해킹에 일가견이 있는 두 명의 젊은 해커인 마르크와 구이도가 복잡한 전산망을 뚫고 바티칸의 은밀한 슈퍼컴퓨터에 침입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때 그들의 모니터에 갑자기 희한한 그림들이 나타난다. 예후다의 배반을 다룬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을 다룬 그림들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그 그림들의 내용은 우리가 아는 공식적인 판본과 완전히 상치된다. 내용이 상치된다는 것은 이 시뮬레이션이 항간에 스캔들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말한다. 가톨릭교회의 기반을 흔들어 놓을 만한 것이다. 즉 한 유적지를 발굴하던 중 “바울 복음서”의 일부가 발견된다. 그것에 따르면 예수 대신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는 베드로의 이름으로 살아남았다는 것이다.

한편, 추기경 디 밀라니는 교황의 여름 별장의 비밀 지하실에서 똑같은 장면을 처음으로 목격한다. 추기경 디 밀라니는 재빠르게 행동한다. 그는 그 2000년 묵은 비밀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자료는 무엇이든 다 폐기처분하도록 명한다. 그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는 추기경이 어릴 때 데려다 키워 그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서슴없이 따르는 알베르토이다. 거의 대적할 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는 추기경을 위해 방해가 되는 자들을 인정사정없이 모두 제거한다. 세 명의 유적 발굴자들뿐만 아니라 아무 죄 없는 경찰관들까지도 그의 희생물이 된다. 때문에 켈른의 두 젊은 해커 역시 갑자기 믿을 수 없는 음모에 연루되어 쫓기는 신세가 된다. 그들은 건드리기만 해도 목숨과 맞바꾸어야 하는 비밀과 관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끝내 주인공만 가까스로 살아남아 이스라엘로 도망쳐 그곳의 비밀 경찰을 끌어들인다.

오래 전에 사라진 복음서를 둘러싼 이 스릴러물은 사람을 우습게 여기며 교황으로의 출세에 눈이 먼 디 밀라니 추기경과 우연한 기회에 바티칸의 비밀스런 전산망에 접근하였다가 엄청난 권력의 힘과 대면하게 되는 두 젊은 해커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 소설의 작가는 본디 사라진 복음서를 소설로 쓰려는 구상을 이미 몇 년 전부터 갖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때만 해도 출판사에 이런 구상을 이야기하면 달갑지 않은 반응만 있었다. 아직 그런 소재를 다룰 만큼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몇 년의 세월이 더 흐르고 댄 브라운의 성공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출판사나 방송매체는 작가의 제안에 적극적인 호응을 보냈다.

작가는 작품을 쓰면서 소설 전개에 정확성을 위해 동료 베른하르트 헤넨과 디터 빙클러의 도움을 받았다. 베른하르트는 역사와 고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 역사적인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디터는 컴퓨터 방면의 전문가로서 그에게 조언을 주었다.

1953년생인 볼프강 홀바인은 독일어권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공포물과 사이언스 픽션 그리고 판타지 작가로 총 200권이 넘는 그의 작품들은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총 3,000만 부 이상이 판매되었다. 그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판타지를 썼으며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은 어느 전시회의 야간경비원으로 일할 때 겪은 따분함 때문이었다. 처음엔 그는 여러 필명을 써가면서 짧은 소설과 공포물을 썼다. 1982년에 한 판타지 및 사이언스 픽션 경시대회에 응모함으로써 문단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는 아내 하이케 홀바인의 상상력에서 나온 판타지를 바탕으로 해서 공동으로 《메르헨몬트》라는 작품을 써서 이 경시대회에서 일등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이 작품으로 여러 상을 탔다. 《메르헨몬트》는 그의 작품들 중에서 처음으로 2006년에 미국에서 출간될 예정이다. **★**

글쓴이\_ 김재혁(번역문학가, 시인, 고려대 교수)

Germany

# 《한방소설 漢方小説》

## 약도 위로도 듣지 않는 당신에게 보내는 처방전

원 제\_ 한방소설(漢方小説)  
저 자\_ 나카지마 타이코 中島たい子(Taiko NAKAJIMA)  
출판사\_ 集英社



**가와** 나미 미노리, 31세, 직업은 시나리오 각색가. 자유로운 생활과 누구나 부러워할만한 탄탄한 커리어, 그리고 정신적인 지주인 친구들까지, 그녀에게 부족한 것이라고는 없어 보인다. 단지 2주전 우연히 한참 전에 헤어졌던 남자친구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 소식을 접한 그녀는 그날부터 이상하리만큼 마치 로데오 기계에라도 올라탄 듯이 갑자기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도 하고, 미열에 시달리거나 소화불량, 불면증에 이르게 된다. 급기야 구급차에까지 몸을 싣게 된 미노리의 병원은 이때부터 시작된다.

새벽 2시임에도 불구하고 머리에 무스를 잔뜩 발라 스타일을 살린 응급실의 젊은 의사, 장작 3시간의 대기 후 3분의 진찰을 받았던 대학병원의 중년의사, 동네의 전 헤비메탈 그룹의 멤버였던 날라리 의사, 보건소에서 봉사하는 것 좋아하는 인턴에 이르기까지 그녀에게 내린 진찰 결과는 원인불명의 과도한 스트레스에 의한 일시적인 소화불량. 하지만 이 진찰 결과에 승복할 수 없는 미노리는 밀져야 본 전이라는 생각으로 천식으로 고생했던 고등학생 시절 자주 갔던 한의원을 찾게 된다. 물론 미노리의 상상속의 한의사는 주름이 자글자글한 노인이라고 생각하고 결정지어 놓은 상태로 말이다.

하지만 그날 미노리가 본 한의사는 30대 초반의 서글서글한 호남형의 사카구치 선생. 절대로 베테랑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제 막 의사라는 직업을 시작했을 것만 같은 인상. 미노리는 생각한다. -휴, 오늘도 시간낭비겠군. 원인불명의 과민성 소화불량!- 맥을 짚고 혀를 내밀어 저 깊은 속까지 들여다보고, 누워서 여기저기를 눌러 본 의사와 드디어 대면하는 심드렁한 미노리. 하지만 사카구치 선생의 표정은 한 점 흔들림 없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가와나미상의 몸 전체의 밸런스가 무너져있으며 특히 신장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동안의 불성실한 진단 결과만 들었던 미노리에게 이보다 더 성실한 답변이 있었을까? 그 결과 첫인상과는 달리 이 사카구치 선생에 대한 미노리의 신뢰감은 점점 절대적으로 커질 수 밖에 없다. 급기야 닥치는 대로 한방관련 서적을 사들여 자신이 지금 먹고 있는 약초의 성분이나 오장육부의 오행설, 7가지 성질을 통해 치료하는 한방의 모든 과정을 섭렵해 가면서 그녀는 점점 자신이 왜 이런 원인도 모를 병에 걸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결국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건 자기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미노리는 깨달아 가게 된다.

전에는 현대를 살아가면서 그리고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스트레스가 없다는 것은 사는 의미가 없다고 스트레스 자체를 당연히 생각했던 미노리는, 사카구치 선생의 표면에 드러나 있었던 상처가 나았다고 끝내는 치료가 아닌, 내면에 그어진 깊은 상처를 돌보는 치료를 받으면서 달라져간다. 그런 당연한 스트레스는 그 누구의 탓도 아니고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라고, '내일이 아닌 어제를 향해 달려가는 정신이 문제'라고 말하는 모리모토의 말이나 내가 힘든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감추려고 하기 보다는 힘들 때는 누구에게 기대는 법도 알아야한다고, 눈이 보이지 않아 돋보기를 쓰는 것이 창피한 일이 아닌 것처럼 외롭고 힘들 때는 감추기보다 오히려 누구에게든 위로를 받고 적절한 치료받는 것으로 그것을 고쳐가려는 것이 중요하다고 충고하는 라디오 DJ의 말을 통해 누구나 한번쯤은 고민했을 법한 내 자신의 문제점을 짚어나가게 된다. 그동안 내 옆에서 항상 나를 지켜주는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도 한번쯤은 생각하게 되는 이 책은 제28회 스바루문학상 수상작이기도 하다. **한글**

글쓴이\_ 한귀숙(임프리마 코리아 에이전시)

JAPANESE